

ARTIST REVIEW



〈그냥 숲〉 캔버스에 혼합재료 162×392cm 2018-2019

MOON SUNGSIC



문성식은 먹을 걸 심어야 하는 밭에 꽃을 심는 탐미주의 집안에 태어났다. 명절에 본가에 가면 모두들 꽃밭에 모인다. 꽃은 활짝 피어났다가 스러진다. 매 철마다 스러져도 매 철마다 가꾼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안에서 고뇌하고 서서히 죽어간다. 4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 <아름다움, 기묘함, 더러움.(BEAUTIFUL. STRANGE. DIRTY.)>(11.28~12.31, 국제갤러리)에서는 생명의 신비와 '꿀림'을 벽화와 민화에서 얻은 질감과 감각으로 구현했다. 매 철 스러져도 다시 꽃을 심어야 하는 인간의 숙명 같은 것들을 아름답고도 처절하게 보여준다.

문성식은 1980년 태어났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서 예술사와 예술평론사를 졸업했다.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서 최연소 작가로 참여하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키미아트(2006), 국제갤러리(2011), 두산갤러리(2016)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회화의 확장>(2009, 체코 프라하 비엔날레), <Serrone>(2011, 이탈리아 몬차 지오바니 비엔날레), <8컷 드로잉>(2017, 금호미술관) 등 국내외 다수 그룹전에 참여했다. 리움 삼성미술관, 두산아트센터, 화이트컬렉션, 소마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었다.

관찰과 통찰의 시간을 산다는 것

이은주 | 독립큐레이터, 미술사

내게 매일의 산책이 중요했던 한 시기가 있었다. 매일 똑같은 산책길에서 매일 똑같은 체육복을 입은 한 아저씨가 달리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고, 하늘 위로 비행기가 천천히 지나갔다. 그 궤적 사이를 가로질러 새 한 마리가 빠르게 날아가고, 누군가 던진 돌이 물웅덩이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로 다른 속도와 호흡을 지닌 존재들의 동시다발적 사건들이 한순간 서로 교차하면서 갑작스레 특별한 것 없는 일상 안에 잠재된 수많은 층위의 풍성함이 느껴졌다. 문성식의 작업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그 시절 산책길에서의 감상이 새삼스럽게 생각난다. 일견 무덤덤해 보이는 문성식의 시선은 그가 살아가는 세계의 두께와 그 층위의 갈래들 사이를 관통하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존재들이 일으키는 동시다발적인 사건들을 특유의 예민함으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듯하다.

문성식 작업의 중요한 출발점은 자연에 대한 관찰이다. 자연의 순환주기와 생로병사를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원환경에서 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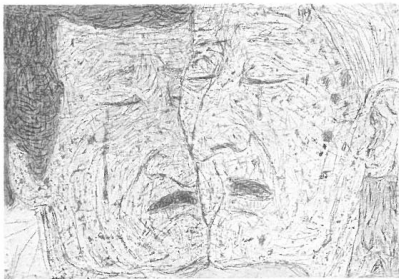
그에게, 관찰은 개별 대상을 넘어 그것들이 속한 자연적 삶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콘텍스트를 바라보는 것이 된다. 그의 작업이 브뤼헐(Pieter Brugel)과 같은 플랑드르 화가들의 작업처럼 자연 관찰에 기반을 둔 세부 묘사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한편으로 무수한 사건이 벌어지고 잊히는 삶의 시간들을 조망하는 듯한 성찰의 시선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2016년 작가는 현시원과의 인터뷰에서 “죽는 거 늙는 거에 대해서 그림이 태연하게 접근하게 하는 게”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필자는 이 ‘태연함’이야말로 문성식의 작업을 설명하는 매우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문성식의 시선은 세부를 바라보면서도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이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향한다. 일상의 단편을 통해서도 삶의 다채로운 결을 포착하지만, 종종 그림의 대상이 되는 가족사의 회로악락에 대해서도 감정적 과잉이 없는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렇다고 무정하지도 않은 그 시선은 외부 세계에 다정한 거리감을 가지고 삶의 흐름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주시한다. <사람, 눈물, 파리> (2015~2016) 연작에서 그는 죽음을 향해 가는 할아버지의 몸이나 슬픔에 빠진 가족들의 얼굴에 알갭게 붙어있는 파리들을 포착하여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는 장면을 만들었다. 이처럼 문성식이 바라보는 세계에서 슬픔과 웃음은 뒤섞여 있으며 드라마틱하지도 않다. 겨울이 지나가고 꽃이 다시 피어나는 사계절의 흐름처럼, 울고 웃고 사랑하고 싸우다가 언젠가는 죽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그가 소묘하듯 사실적으로 포착한 세부 장면들은 종종 부감법과 같은 먼 시점에 의해 전체의 일부가 된다. 예컨대 산 속에서의 장례식을 그린 <사람들>(2012)에서 꽃상여나 상복, 하관의 현장에 내재된 죽음의 비극성은 봉묘를 위한 특별한 것 없는 노동이나 상여를 지고 온 이들이 담배 피며 담소하는 모습 등과 어우러지면서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 장면 안으로 무심하게 흘러간다. 거대한 숲 풍경을 그린 <숲의 내부>(2015) 안에는 군집을 이루는 동물들의 생태나 치열한 생존의 긴장과 폭력, 은밀한 벌레 현장까지 숨어있지만, 그 천태만상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지나가는 숲의 시간과 리듬이 있다. 문성식의 숲 풍경 속에 종종 등장하는 부엉이는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관찰자이자 대자연의 주기를 내면화한 존재로서, 작가 자신의 눈에 대한 상징물처럼 느껴진다.

세부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바라보는 문성식 특유의 시점은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 전시된 <그냥 삶>(2019)이라는 새로운 연작에서도 나타난다. 이 근작들에서 그는 조선시대 화조도나 초충도와 같은 전통 그림의 형식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인남) 캔버스에 젯소, 과슈
14×26cm 2018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권오열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 K2 전시 풍경.
왼쪽부터 <정원과 남자> 캔버스에 혼합재료 34.8×27.5cm 2018
<3월> 캔버스에 혼합재료 22×16cm 2018
<장미와 나> 캔버스에 젯소, 연필 21×22.5cm 2017
<슬픔> 캔버스에 젯소, 연필 21×22.5cm 2017
<전쟁> 캔버스에 혼합재료 43×43cm 2017



〈그냥 삶〉 캔버스에 혼합재료 309×175cm 2019 국제갤러리 K3 전시 광경

했다. 화조도나 초충도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부귀영화나 자손 번성 등을 기원하면서 음양오행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적 자연관을 함축하고 있다. 문성식의 그림 역시 단편적 현실에서 출발하는 사생과 소묘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계절이 흘러가고 다시 찾아오는 순환의 흐름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세부를 포착하면서도 삶 혹은 자연의 섭리를 지시하는 상징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문성식은 꽃을 좋아하는 이유를 “외계에 대한 신비” 때문이라고 말한다. 씨앗에서 시작된 것이 성장하여 번식하고 피어나는 과정 자체가 알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이다.

멀리서는 전통적인 화조도나 초충도처럼 보이는 <그냥 삶>(2019)을 가까이서 보았을 때의 반전 효과는 흥미롭다. 그 안에는 화조도나 초충도의 이상화된 자연과는 달리 동식물의 치열한 생태로 대변되는 현실이 존재한다. 가시가 있는 화려한 장미꽃들 사이로 처진 거미줄에는 나비가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나뭇잎에는 벌레들이 우글거려 구멍이 나 있기도 하다. 탐스러운 꽃을 따려는 욕망에 찬 인간의 손이 출현하기도 한다. 작가가 화면 위에 물감을 쌓고 다시 떨어뜨려 만들어진 세심한 균열의 흔적들은 화려하게 핀 꽃에 처연함을 부여한다. 마치 이상화된 초충도에 누락된 진짜 세계에 망원경을 들이대듯이, 문성식은 작은 생태계 안에서 벌어지는 생존의 현장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꽃과 나비들을 통해 그야말로 태연하게 그려낸다. 미시적인 자연계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건들에서 빠져 나오면, 관람자는 다시금 작가가 전체를

바라보는 그 태연한 시선을 통해서 마치 화조도를 감상하듯 이 온갖 생태가 얽혀있는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성식의 작업은 경험적 세계의 시간을 회화라는, 사각형의 창과 같은 공간 예술의 장에 압축시키는 과제와도 관련된다. 문성식은 그간 스스로 관찰한 현실의 순간순간을 포착해가는 일상적 소묘와 같은 드로잉과 그 사건의 시간들을 단일한 화면 안에 종합해내는 회화를 함께 시도해왔다.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드로잉과 사진 계획이나 지속적 노동을 요하는 회화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오랜 숙제였다. 선묘적 드로잉의 예리한 감각과 자발성을 유지하면서도 화가의 흔적을 쌓아가는 밀도를 가진 그림을 향한 그의 노력은 최근 몇 년간의 작업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는 몇 년 전 <도시와 새>(2015) 연작에서도 영모도나 화조도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새와 나무, 고양이 등을 그린 바 있는데, 수목화화도 같은 흑백 색조로 그려진 담담한 선묘적 특성이 붓질의 결이나 그림의 소재와 잘 결합된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앞서 언급한 <숲의 내부>(2015)에서도 세부 사건을 포착하는 소묘의 특성이 숲의 파노라마적 공간성과 결합되면서 드로잉의 요소와 회화적 구성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완결감이 느껴진다. 이 작품이 어딘가 민화를 연상시킨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근작들에서 문성식이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하면서도 드로잉과 회화가 결합된 지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화조도나 초충도의 형식을 참조하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인다.

또 다른 근작인 <그저 그런 풍경>(2019)은



부산 해운대 작업실의 문성식.
배경은 <그냥 삶> 캔버스에 혼합재료
200×522cm 2018-2019 사진: 박홍순

유화물감 위에 연필을 이용한 선묘로 평범한 나무, 동네 벽돌담, 마당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을 그린 연작이다. 담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 나무 아래에서 아기를 엮고 있는 노인, 정원의 나무에 물을 주는 장면 등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이 담담하게 펼쳐지지만, 토막 난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는 장면들은 작품 제목처럼 “그저 그런” 일상적 시간들 안에 함축된 삶의 정수를 느끼게 한다. 이처럼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일상의 시간을 살고 있는 화가의 지루하지만 아름다운 시간들을 느끼게 하는 작업의 원천은 결국 관찰과 통찰의 힘이다. 작가와 현시원의 대화 중 한 구절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국 건축에 많이 있는 꼬부라진 나무를 그대로 쓰는 여유, 그게 정말 독특한 미학 같아. 추사 글씨의 느낌, 보리굴비 먹어보면 딱 느낌이 와. 와 이런 맛이구나. 통하는구나.”¹

¹ 문성식, 현시원의 인터뷰, <알곳은 세계>(두산갤러리 전시도록) 2016, p.92.